



정교회주보

제2583호

2026년 6월 2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바울로 사도가 걸었던 길에 세워진 데살로니카의 로마 시대 유적, 갈레리우스 개선문



마태오 제 4 주일
성 기로스와 성 요한
자선치료자(이장)
(제3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자선치료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6,18~23 ... (봉)145
- 복음경 : 마태오 8,5~13 11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5회] 데살로니카의 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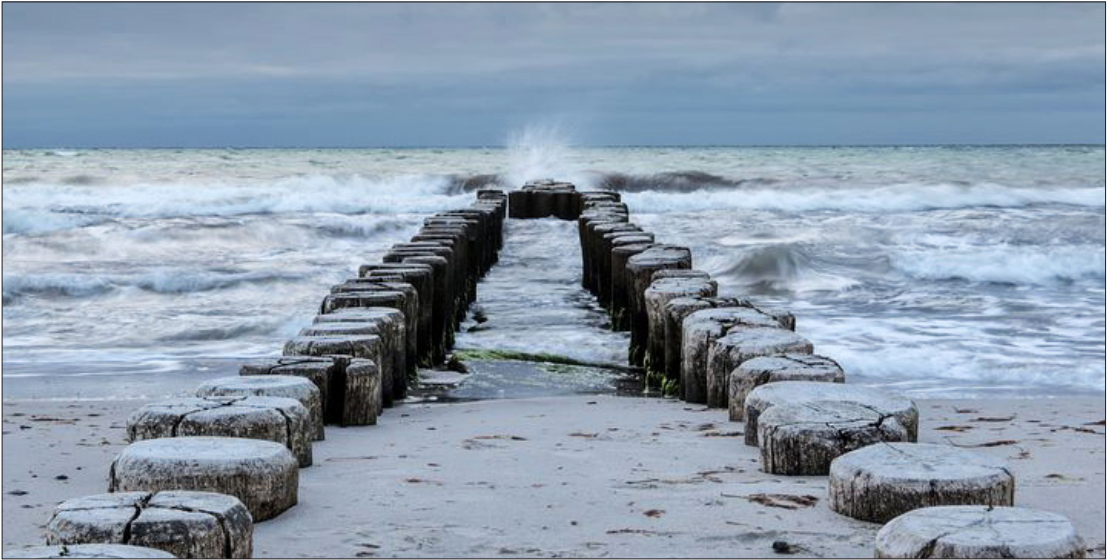
필립비를 떠난 바울로는 마케도니아의 중심지 데살로
니카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서를 풀이하며, 예수 그
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다.(사도행전 17,1-3)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믿음에 이르렀으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일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도시를
소란에 빠뜨리고 사도들을 고발하였다. 이 소동 속에서
교회는 위협받았고, 바울로는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
다. 그러나 새로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는 환난 가운
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데살
로니카 전 1,6)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케도
니아와 아카이아 지역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
으며, 복음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임을 증언
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살아
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데살로니카 전 1,7-8)

은폐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리낌 없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성서에서 처음으로 에덴동산에서 악마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교활하게 뱀의 모습을 빌려 하와를 속였고, 금지된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이어 아담까지 하느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인간의 삶 안에서 파괴적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감춥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 회사들이나, 여러 혜택과 편의를 약속하며 다가오는 은행들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악마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묘하고 위장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연극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가면을 쓰거나 다른 인물의 모습으로 꾸미듯,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도 “빛의 천사로 자랑합니다”(2고린토 11,14 참조). 그는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사람들에게 심어 줍니다.

“에이, 그런 걸 믿지 마. 악마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악마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욱 쉽게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악령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탄적인 계략을 분별하려 노력하며, 자신이 속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사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악마의 계략을 드러내 보여 주어 그들을 우리 구원자 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크리소스토모스 필리페스쿠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나무는 일 년 내내 자연의 모든 풍파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바람과 폭풍우, 우박과 서리...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봄이 찾아옵니다.

나무는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 내고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 그늘로 뜨거운 햇볕을 피해 찾아온 이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품어 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겸손한 마음으로 견뎌 낼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구원을 가져오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이 세상에 지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 가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그 따뜻함은 언젠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잠시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용기를 잃거나 주눅 들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화를 품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지만, 행복과 평화를 간직한 사람은 주변에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이에게 공격받거나 상처받는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도 환히 웃으며 주변에 빛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내일(29일) 축일을 맞이하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다니엘 대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충만한 은총과 풍성한 영적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6월 29일(월)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 * 6월 30일(화)
12사도 연관 축일
- * 7월 1일(수)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영성의 샹터

하느님의 관용

지혜로운 사부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선을 위해 영적 투쟁을 할 때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우리를 복돋워 주시겠는가?”

소 식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올해 대교구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7월 15일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7(월)-31(금):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비 12만원)
7/31(금)-8/2(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8/3(월)-6(수): 고등학생 (참가비 9만원)

■ 일본 사목 방문

지난 주일(21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크리스토퍼 보제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성 알반 성공회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신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예배는 일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그리스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보제는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인사와 축복을 전달하였으며, 20년 동안 봉직한 뒤 자발적으로 사임한 폴 코롤룩 신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신자들과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NCKK 에큐메니칼 리더십 아카데미, 서울 성당 방문

지난 18일(목), NCKK 「2026 에큐메니칼 리더십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는 한국 정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교회의 직제와 직분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어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이콘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전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교구 선교회관에서 진행 중인 비잔틴 성화 세미나를 참관한 뒤,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